



트럼프-시진핑, 對中관세 10%P↓·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합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이 최근 각각 희토류 수출 통제와 추가 관세(100%) 카드를 꺼내면서 확전 우려가 제기된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파국'을 피하는 한편, 일시적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첨예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은 지속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미중관계 '새판짜기'는 양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한 후속 정상외교가 이뤄질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군 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100분간 회담한 뒤 귀국길에 전용기 에 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면서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성격의 20% 관세를 별도로 부과해왔다.

확대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의 10% 포인트 인하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57%였다가 이제 47%가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근래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서 열린 6년만의 양정상 회담서 무역전쟁 확산자제 뜻 일치한듯

트럼프, 회담결과 소개...中, 펜타닐 차단 협력하고 美 농산물 구매키로

내년 4월 방중...시진핑, 그후에 워싱턴이나 플로리다 답방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 DC로 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초고율 관세 유예의 기간은 1차로 8월까지 3개월 책정됐고, 한차례 연장돼 11월 중순 만료되기에, 양측은 파국을 피하려면 협상을 통해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로 제한된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판매 문제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막 어제 출시된 블랙웰(엔비디아의 최신 AI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침이 있다"면서 "그리고 그건 우리한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최첨단 AI칩을 제외하고는 반도체를 많이 팔아야 AI산업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오래"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만 문제는 이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 회담 직전에 국방부 장관에게 핵무기 실험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때문에 그랬다"고 답했지만, 어느 나라를 겨냥했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6년만에 이뤄진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가능한 형태로 합의를 했다"며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매우 우호적인 회담이었다. 매우 크고 강력한 두 나라에 좋은 회담이었다"면서 이번 회담에 0에서 10 사이에 점수를 매긴다면 12점을 주겠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헤어지면서 악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를 말하는 모습이 현장의 취재진

에 포착됐다.

이날 회담에는 미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스 그리어 USTR 대표 등이, 중국 측에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겸 당 외사판공실 주임,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각각 배석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업을 상대로 진행해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그 문제를 협상하는 동안에는 조사를 미루기로 했다"면서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천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조선·해운 산업에서 불공정한 정책으로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등의 조치를 최근 시행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이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고, 미국 선박에 대해 상호주의적으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사에 대해 "이제 디자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두 사람이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이재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 加총리에 잠수함사업 관련 "韓 적극적 기여 희망"

카니 총리 한국 잠수함 기술·역량 잘 알고 있어 화답

李대통령 동맹 준하는 우방 加총리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정상회담 후 오찬...카니 총리, 양국 국기 그려진 마카롱 포장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캐나다가 추진하는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과 관련해 마크 카니 총리에게 한국의 적극적 기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한 카니 총리와 경주 시내 한 호텔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 확보와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카니 총리는 이에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제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현재 캐나다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 발주를 준비 중이며, 한국 기업들이 사업의 결선인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선정된 상태다.

양 정상은 아울러 잠수함 외에도 방산 분야에 있어 공동 발전의 여지가 크며 방산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양국은 방위 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 세부적이고 지속적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있어선 "이번 회담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카니 총리도 "핵심광물·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는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있어 단순한 우방을 넘어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이라며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가) 6·25 전쟁 당시 2만7천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셨다"며 "양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평가했다.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캐나다가 기초 연구를 선도적으로 했기에 전 세계가 큰 혜택을 보고 있다"며 "국방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에게 "국제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기요인이 있지만 캐나다와 한국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며 "방향을 중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

카니 총리는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APEC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제를 설정해주신 점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한국은 캐나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국방, 상업,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무역 관계도 중요하고 국방 협력과 문화적 차원의 교류도 증대되고 있어 (양국 관계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동석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마크-안드레 블랑샤드 총리 비서실장과 데이비드 맥퀸티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양 정상은 비공개 대화에선 메이저리크 월드컵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회담 중 캐나다의 '토론토 블루제이스' 팀이 승리

한 소식이 전해지며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졌다고 김 대변인이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서는 카니 총리를 환영하기 위해 한국과 캐나다의 주요 식재료를 활용한 5가지 코스의 오찬이 제공됐다.

오찬을 마친 캐나다 측 대표들은 "최고의 식사였다"(the best meal ever)며 'K-푸드' 오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카니 총리는 양국 국기가 그려진 마카롱을 포장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매우 만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예술에 조예가 깊다고 알려진 카니 총리 취향을 고려해 한국의 전통미와 섬세한 장식의 세련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도예작품인 '백자 매화칠보문 이중투각호를 선물했다.

한편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5천급 이상으로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보고-III 배치-III' 건조에는 10년 이상 소요돼 확보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에 쓸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봉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상호관세 15%·

현금투자 年 상한 200억불

3천500억불 중 2천억불 현금 투자...원리금 회수까지 5대 5 배분

외환시장 충격 없을 것 농업 추가개방 방어, 반도체 불리한 대우 없어

한미가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양측 모두 '사실상 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에만말로 마침표를 찍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천500

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다층적으로 마련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투자위원회 및 협의위원회를 가동해 양국이 투자할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